

기억의 초국적 이동과 이민자 집단의 정치: 미국 위안부 소녀상을 사례로

윤지환*

Transnational Migration of Memory and Politics of Immigrant Community: The Case of Comfort Women Memorials in the U.S.

Jihwan Yoon*

요약 : 본 연구는 특정 집단의 기억이 공간적 스케일을 넘어 확산되는 과정에 주목하며 이의 원인과 지리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위안부의 역사는 한반도를 넘어 미국의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회자되기 시작하여 2010년 뉴저지 주 팰리세이즈파크 공립 도서관 마당에 미국 최초의 위안부 기림비가 건립되는 결실로 이어졌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었던 전쟁 범죄의 피해 경험이 제한된 스케일을 넘어 미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은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다층적 과정 및 정치적 목적이 내포되었음을 이해해야 한다. 본 연구는 위안부 기억의 초국적 확산 과정에 있어 미국 내 한인 이민자 집단의 역할에 대해 조명하며 그들의 미국 내 정치적 입지 확대 및 타 민족과의 정서적 연대에 있어 기억의 이식이 어떻게 개입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요어 : 기억의 이동성, 이민 사회, 탈영역화, 재영역화, 공감의 정치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raise our understanding of how memory of a social group is transnationally appropriated and utilized by other subjects. A collective sense of justice for comfort women has been handed to many Koreans either in Korea or in overseas countries since the early 1990s. In the U.S., the first comfort women monument was established in Palisades Park, New Jersey by Korean-Americans and local politicians as they wanted to strengthen the common sense of Korean ethnicity with the symbolic power of the memoryscape. Exploring the diffusion of comfort women memorials in the U.S., this study examines the complexity and multilayered structure of memory politics and its transnational mobility, which are connected to Korean-Americans' struggle for belonging.

Key Words : mobility of memory, immigrant society, deterritorialization, reterritorialization, politics for recognition

*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초빙교수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onkuk University)(amyjh07@konkuk.ac.kr, amyjh07.yoon@gmail.com)

1. 서론

기억에 대한 관점과 개념은 공간을 소유하는 지리학자들에 의해 많은 부분 논의되어왔다. 무형의 기억이 세대와 계급을 거쳐 전해지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공간이라는 물질성과의 결합으로부터 비롯되며 이는 기억이 장소를 기반으로 고착화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Till, 2012). 공간은 다양한 집단들의 기억이 흔적을 남기는 매개체이자 무형의 기억을 형태적으로 남기기 위해 사회 집단들이 투쟁을 펼치는 장이기도 하다(Alderman and Inwood, 2013).

지리학에서는 그동안 공간적 맥락이 인간의 다양한 활동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인간과 공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주도해왔다(주성재·노경란, 2018). 이 과정에서 진행된 인간의 공간 착근성 논의와 인문 환경 및 자연의 생산에 있어 파편화된 주체들이 담당하는 주도적인 역할 분석은 지리학이 취할 수 있는 강점이자 사회 기여로 바라볼 수 있다(신동호, 2013; 장한별·지상현, 2018). 최근 지리학에서의 관심은 이러한 인간-장소 관계와 더불어 보다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생산되는 공간과 그의 사회문화적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되었다(권상철, 2015; 이홍택·정성훈, 2012). 이 논문은 공간 생산과 사회문화적 의미 생성에 있어 보다 다양한 주체들로 초점이 이동하는 현대 지리학의 흐름을 이어받아 초국적으로 확산되는 위안부의 기억이 어떻게 이질적 집단들에 의한 중층적 구조를 통해 이어왔는지를 분석하였다.

최근 지리학에서는 하나의 장소에 기반한 토착화와 물리적 재현을 넘어 기억이 어떻게 다양한 수단을 통해 다층적인 스케일로 확산될 수 있는가를 분석하기 시작했다(Bond, Craps, and Vermeulen, 2017; Levy and Sznajder, 2002). 이는 사람과 사물의 이동이 점차 초국적 스케일에서 벌어지

고 있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주자들은 자신의 고국에 존재하고 있는 기억들을 새로운 거주지에 옮겨 심는다(Jacobson, 2002; Novick, 2000; Shirinian, 1998). 이주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기억의 초국적 이동은 단순히 고국에서의 관습이나 추억으로부터 비롯된 현상이라기 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목적과 함께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 기억은 한 집단의 경험 및 정서적 측면과 강하게 연결된 문화 요소이자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가 교차되는 지점에 위치한 상징적 자산이다(Rose-Redwood, 2008). 이를 바탕으로 기억을 바라본다면, 누구의 역사가 기억되느냐의 문제는 곧 해당 사회의 해계모니와 권력 체계의 주도권 갈등으로 연결된다(Foucault, 1980). 기억에 녹아있는 이야기에는 독특한 뉘앙스의 담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자신의 현재적 위치와 연결 지어 효율적인 서사로 풀어내는 것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의 실천적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억의 재현은 다분히 정치적이며 이주민들은 자신의 기억을 타지에 이식하는 작업을 통해 뿌리로부터 오는 정체성의 강화, 사회문화적 위치성의 조정, 소속감의 설정 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Assmann, 2014).

기억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속성은 따라서 각 주체들의 이해 관계가 정교하게 통합되어야 하는 작업을 수반하게 된다. 기억을 둘러싼 조정과 합의의 과정은 특히 다른 민족적, 인종적, 계급적 집단과 뒤섞여 있는 이주민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집단들은 타 집단과의 정치적 관계 형성 혹은 투쟁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된다(Hopkins, 2006). 위안부 기억이 한반도라는 스케일을 넘어 미국 사회로 이동하게 된 배경에는 이와 같은 이주민 정치의 단면이 작용되었다고 봐야 한다. 해외 국가에 뿌리내리는 과정에 있어 이주민들은 고국 사회에서 느낄 수 없는 주변적 위치와 외부 공격으로부터의 불안정한 안전망 등을 겪게 된

다(Watson, 2009).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들 역시 1992년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흑인 폭동을 통해 미국 사회 내 자신들의 불안한 위치성과 취약한 안전망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 표면적인 시작은 미국 내 흑백 갈등으로부터 비롯되었지만 사태의 피해는 폭동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한인 사회에 집중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인 사회에서는 미국 내 자신들의 사회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인의 정서에 공통으로 스며들 수 있는 집합적 기억을 찾게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목적으로부터 비롯된 미국 사회로의 위안부 기억 이식은 다른 집단들과의 이해 관계를 포섭하는 과정을 거쳐 소녀상이라는 경관적 결실로 이어지게 되었다. 위안부 기억이 소녀상이라는 경관적 매개를 통해 미국으로 이식되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본 연구는 기억의 초국적 이동과 이민자 집단의 정치에 관해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 번째 측면은 공공의 기억이 탈영역화(deterritorialization)와 재영역화(reterritorialization)를 거쳐 초국적 스케일로 확산되는 과정이다. 기억은 공간과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생산하며 영역을 뛰어넘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을 불러일으킨다(Alderman, 2003; Herod, 1997; Post, 2011). 기억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인식은 기억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사회 정의(social justice)로의 인식이 한국계 미국인들의 정치적 목적과 결합하여 위안부 기억의 미국 내 확산을 주도했던 과정과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의 기억이 생산하는 사회적 담론과 대중적 공감, 그러한 공감의 확산은 곧 기억의 초국적 이동을 위한 기본 전제로 작용한다. 두 번째 측면은 미국으로 위안부 기억을 이식했던 한인 집단 내부의 정치적 조건과 미국 사회의 위안부 기억 흡입 요인이다. 기억이 초국가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입장과 본토인의

이해관계가 절충되어야 한다. 위안부의 기억이 이동하는 과정의 이면에는 다양한 정치적 과정들이 내재되었으며 이에 참여한 주체들의 사회적 배경 또한 단순한 구성이 아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기억이 이동하는 현상은 단일한 주체에 의해서가 아닌 다층적 집단들의 개입이 전제되어야 하며 중층적 스케일의 행위들이 조합되어 발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Glazer, 1998). 이러한 관점에 따라 본 연구는 위안부의 기억이 미국으로 이식되었던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한인 이주민 단체, 미국인 화가, 미 정치인, 기타 이민자 집단 등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주체들과 접촉하였으며 이들이 행한 행위가 고정된 스케일이 아닌 상호 의존적인 스케일의 영역에서 발생했음에 주목하였다. 세 번째 측면은 소녀상이 건립된 미국 도시 내 위안부 문제 인식의 확산과 기억의 정치에 관한 주제이다. 비록 이민자들은 집단 내부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 형성의 일차적 목적으로 고국의 공공 기억을 이민 사회에 이식시키지만(Fortier, 2000), 이는 필연적으로 기억이 가진 담론 형성의 본질적 요소와 결부되는 사안이다. 실제로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과 그것이 주는 인권 이슈에 대한 경각심은 미국 정치인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했으며 이는 소녀상 설치가 승인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다. 이러한 과정을 추적하면서 본 연구는 기억의 이동과 인권 문제의 국제적 확산이 발생하는 구체적 사례를 논하고자 하였다.

위 세 가지 주제들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미국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와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 일대를 방문조사하였으며 해당 시기부터 2018년 10월까지 두 지역 인근의 한인 시민단체와 미국 예술인, 지역 의원들과의 직접 인터뷰 및 스카이프 화상 대화를 수행하였다. 위안부 소녀상 건립과 관련한 각 주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필자는 소녀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 및 생각들과 위안부의 기억이 소녀상을 통

해 미국으로 확산되었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기억의 이동에 관한 이론적 사유

위안부 기억의 초국적 이동과 미국 영역 내에서의 정착에 대한 이해는 기억의 이동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기억의 이동에 관한 이론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위안부 기억의 확산이 반세기 간 억제되었던 사실에 대한 포스트식민주의적 설명과 기억의 경관이 형성되면서 성장하는 인권운동 담론, 두 번째는 이민자 민족 집단에 의해 주도적으로 재영역화되고 수용되는 고국의 기억, 그리고 그로 인한 이민자 집단의 정치 역량 강화 등과 관련한다. 두 번째 이론적 배경과 관련하여, 실제로 미국 내 한인 시민단체들은 인터뷰 과정에서 위안부 기념비와 전쟁 성범죄 역사 캠페인이 한인 이민자 집단의 미국 시민 사회 참여, 소속감의 계발, 지역 공동체의 정치 활동 참여 등과 무관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기억이 정체되거나 이동하는 문제의 근원은 포스트식민주의 관점 및 인권의 문제와 강하게 결부된 채 이해되어야 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위안부 문제가 가진 사안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위안부의 기억이 반 세기 가량 한반도 안에서 묶여있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한국의 성 규범과 포스트식민주의 시각에서 비롯된 세계 질서의 이해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진술에서 드러나듯이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왜곡된 순결 개념으로 인해 위안부 문제의 본질이 제대로 거론될 수 없었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993). 전쟁 중 자행된 집단 성범죄에 의해 정신적·신체적 상해를 입은 위안부 할머니들은 전쟁의 피해자로 거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족과 이웃들은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성 규범을 파괴한 주체들로 인식하였다. 또한 사회구조적으로는 1960년대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고자 했던 미국의 의도하에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협상이 진행되면서 전쟁 피해자들의 배상에 대한 논의는 '90년대 이전까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후루하시, 2017). 이러한 현상에 대해 포스트식민주의적 시각은 전후 백인 남성·서방 진영 중심의 권력 편중과 세계 질서 재편에 근본적인 원인을 묻고 이의 결과가 어떻게 전쟁 피해자 및 소외집단들에게는 사회적 관심의 결여 및 배제로 연결되는지를 분석하였다(정근식·김민환, 2016; Bhabha, 2012). 이러한 불평등 구조는 한국의 위안부 여성뿐 아니라 구미 선진국의 소외 집단들에게도 내면화되어 그들의 인권 회복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사회구조적인 배제 속에 '90년대 이전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전무했던 한국 사회에서 포스트식민주의 논의의 대두는 과거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혜정, 2001; 이나영, 2010). 김학순 할머니의 위안부 경험에 대한 최초 공개 증언(1991. 8. 14.) 이후 위안부 문제는 사회 운동가, 언론, 페미니스트 여성 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에 의해 논의되기 시작하여 피해 여성들의 인권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위안부 기억과 관련한 사회 운동은 한반도의 시공간적 맥락으로부터 탈영역화되어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인권 문제로의 관심과 정치적 의미를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산시킨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억의 정치가 소외 집단의 인권 문제 담론을 지원하고 사회적 투쟁을 일으키는 데 있어 광범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Alderman, 2008; Bosco, 2004; Jelin, 1994). 이와 관련하여 소외 집단은 그들이 겪은 차별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적절한 사회적 치유를 얻기 위해 대중의 관심을 환기

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적절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소외집단은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 대한 담론을 강화하고 언어 기반의 권위적 지식 생산 시스템이 집중하는 지배 이데올로기 확산으로부터 이질적이고 차별적인 담론 생산 과정을 활용하게 된다(Foucault, 1980; Lefebvre, 1991). 이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경관은 언어적 지식 체계와는 다른 시각적이고 물질적인 기반을 토대로 소외 집단의 서사와 투쟁에 관한 담론을 생산하며 그들의 기억이 공간적 요소로 비롯되는 상징적 이미지와 함의를 통해 기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Till, 2008). 기억의 정치에서 경관이 담당하는 역할은 또한 대중들로 하여금 비극적 역사로부터 발생한 소외집단의 트라우마를 연대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을 확장시키기도 한다(Till, 2012).

기억의 경관은 디아스포라를 통해 해외로 이주한 민족 집단에 있어서도 고국의 역사에 대한 집단의 인식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로 작용하며 고국의 기억을 새롭게 이주한 지역으로 이식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Jacobson, 2002; Novick, 2000; Shirinian, 1998). 이민 사회로의 기억의 이식은 이민자 집단으로 하여금 뿌리에 기반한 강력한 정체성의 토대를 제공하며 주류 사회와의 교섭과 정치적 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도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Brubaker, 2001). 이는 이민자 집단이 뿌리에 기반한 정체성 강화와 주류 사회로의 동화라는 서로 대척되는 정치 행위를 기억의 이식이라는 행위를 통해 동시에 성취하고자 한다는 데서 매우 독특한 의미를 뿜어낸다고 볼 수 있다(Fortier, 2000). 하지만 수많은 민족 집단이 모인 이민자 사회에서 때로는 이질적인 기억들이 서로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Howe, 1999; Nash, Crabtree, and Dunn, 2000). 이 과정에서 기억이 성공적으로 이민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른 민족 집단과의 연대적 공감과 협력 작업 및 주류 사회로부터의 적절한 정치적 지원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때문에 이민자 집단은 이식될 기억을 선택함에 있어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며 주류 사회의 정서적 공감을 유도할만한 요소도 고려한다. 이민자 공동체 내부적으로나 주류 사회로의 대외적 활동으로 봤을 때 기억의 정당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의 정서적 측면을 아우를 수 있는 “도덕적 통합(moral integration)”이 필요하다(Honneth, 2004, 354). 감성적 혹은 정치적 대의에 모두 호소할 수 있는 기억을 이민 사회에 유입시킴으로써 이민자들은 적극적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이민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에게 사회 정의와 도덕성의 영역을 자극시켜 자신들의 존재적 입지 명분을 확립한다. 이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이민 사회 집단들 간 기억의 해석에 대한 분쟁이 존재한다. 특히나 사회 정의와 지정학적 갈등의 요소를 동시에 내포하는 위안부 역사는 공간적인 재현을 이루는 데 있어 상당히 논쟁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트라우마가 내포된 공공의 서사는 대중들의 인식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화되고 물질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집단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 및 헤게모니와 연결되면서 사회 계층과 민족 집단 간 다툼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Hall and Robertson, 2016).

이러한 기억의 논쟁적 부분 때문에 많은 연구들은 기억을 둘러싼 이민자들과 원주민들 간의 갈등에 많은 비중을 두지만(Anderson, 2006; Roudometof, 2002), 실제로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기억이 이민 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게 하고 이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 계층과의 연대와 정치 참여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기억의 정치를 언급함에 있어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홀로코스트 기억의 초국적 이동은 바로 이러한 연대적 측면과 대중 인식의 유도를 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지역에서 내부적 결속력을 다지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매체 및 공개적 상징물 등을 통해 자신들의 기억이 주류

사회에 효과적으로 침투되도록 하였다(Assmann, 2010). 유대인 자손들은 비록 자신들이 직접 겪은 상처 및 트라우마는 아니지만 위 세대에서 겪었던 학살의 참상을 품고 자신들이 뿌리내린 지역에 홀로코스트와 관련한 다양한 기억의 장소들을 조성해왔다. 특히 과거의 역사적 흔적이 남겨진 장소는 박물관 및 기념물 등 다양한 형태와 함께 보존되어 자신들의 사회적 입지와 정체성의 정당함을 설파하는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되었다(Blickstein, 2009). 기억의 경관(memoryscape)은 한 사회 집단의 사회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원되는 상징적 자산(symbolic capital)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주민들은 다른 정치 세력들에게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적 방향성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Rose-Redwood, 2008; Forest, Johnson, and Till, 2004).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메시지의 강력한 힘은 공공의 기억이 가진 사회적 의와 도덕성의 뉘앙스로부터 비롯된다.

3. 기억의 초국적 이동과 탈영역화: 새로운 장소로의 이식

본 연구를 시작하면서 주목하였던 사실은 수요집회로 촉발되었던 한국 내 위안부 논의의 공론화와 기억의 공간적 확산이었다. 위안부 역사의 인식은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뿐 아니라 국경을 넘어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는 인권에 대한 서사가 초국적 이동성을 가지는 기존의 사례들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Assmann, 2010; Levy and Sznaider, 2002; Rothberg, 2009). 무형의 기억이 물질적 요소들과는 달리 손쉽게 초국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요인은 사회 정의에 대한 인간의 공감 능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Honneth, 2004). 하지만 손쉽게 잊혀질 수 있는 기억의 성질

이 물질적 요소를 만나게 되면 확산의 영속성과 시각적 과급력을 장착하게 되며 기억의 전파에 있어 공간적 거점의 요소를 획득하게 된다(Friedrich, 2011; Tilly, 1994).

위안부 할머니들의 운동은 '90년대 이후 2010년대에 들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기림비와 소녀상의 형태로 재현된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억은 공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과 일본의 지정학적 갈등을 불러오기도 했으며, 시민단체들의 초국적 네트워크를 통한 연대적 움직임의 형태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듯 인권 운동은 공간적·사회적 영역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스케일을 생산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향한 과급력을 확산시킨다(Alderman, 2003; Kelly, 1997; Post, 2011). 사회 운동의 스케일 확장은 단순히 인권 문제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외 집단들 간의 동질적 감성을 강화시키고 운동의 힘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불러온다. 이러한 사회 운동의 초국적 확산 과정에는 또한 지역의 공동체와 연계되어 운동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며 지역에 뿌리내리는 결과로도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위안부 기억의 확산과 전파는 인권 문제 인식의 단선적 공간 이동이라기 보다는 다양한 주체들의 복합적 네트워크에 의한 담론 생산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기억은 초국적 집단들의 다양한 연계 활동을 통해 지역에 뿌리내리며 기억의 새로운 경관을 생산하기도 한다. 기억의 지역적 이식은 바로 이러한 공간적 요소를 매개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기억은 본래의 장소에서 벗어나는 탈영역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Kaplan, 1987). 공간적 네트워크를 따라 이동하는 기억은 한 장소에 뿌리내리며 재영역화의 과정을 이루게 되는데, 미국 내 위안부 소녀상의 건립은 바로 이러한 기억의 재영역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기억의 이식과 재영역화는 하나의 장소에서 활성화된 기억의 정치가 경관적 요소와 융합하

여 스케일의 확장을 일으키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본래의 장소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소에 뿌리내린 기억은 이질적인 토착 문화 및 사회 조건과 결합하여 인권 운동의 새로운 형태를 생산하기도 한다. 한국의 지리적 맥락에서 출발했던 위안부의 기억은 이후 해외 이민자 및 타 국가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반도의 영역을 넘어 탈영역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됐다. 단일한 스케일로 설명될 수 없는 위안부 기억의 인식적 확산은 이후 새로운 공간적 형태를 장착하며 한국계 이주민들에 의해 미국 땅에 뿌리내리는 재영역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미국에 뿌리내린 위안부의 기억은 따라서 한국 사회의, 혹은 한국과 일본 간 발생했던 위안부 담론의 투쟁과는 다른 성격의 흐름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미국에 도착하는 정체성 담론과 사회 운동의 배경을 통해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

타지의 기억을 새롭게 채택하면서 모종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집단은 기억의 영역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정치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기억의 탈영역화를 진전시킨다. 원격의 공간으로부터 새롭게

끌어들인 기억은 또한 새로운 공간에 심겨짐으로써 다른 문화적·정치적 실천들과 혼합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Alderman, Kingsbury, and Dwyer, 2013). 이는 타지의 이질적인 기억이 이식된 공간에서의 문화적 실천에 의해 새로운 이미지 혹은 담론으로 가공되어 현지에 뿌리내릴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실현된다(Lee, 1991). 새롭게 도입된 타지의 기억은 현지에서의 이질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들이 뒤따르는데, 기억의 경관적 형태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공간 실천인 것이다. 경관은 미적인 실천을 기반으로 특정 담론이나 기억을 공간에 재현함으로써 생산된다. 심각한 트라우마나 이질적인 해외의 역사와 같이 대중적으로 소화하기 힘든 서사라도 유연하게 재현된 기억의 경관은 무리 없이 대중들에게 접근되면서 기억의 정착을 돕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Till, 2012).

2000년대 까지 미국 내에서의 위안부 논의는 주로 피해 여성들의 공개 증언과 미국 법정에서의 소송 등에 의해 주도된 경향이 있었다(윤미향, 2012;



사진 1. 미국 뉴저지 주 버겐 카운티 법원 앞 위안부 기림비는 미국 내 다른 인종 집단들의 기억과 함께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 (왼쪽부터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 미국 흑인 노예, 아르메니아 대학살,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들, 사진: 필자촬영, 2015. 10. 27.)

한우성, 2000). 이러한 노력들은 한반도의 테두리를 넘어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폭력성과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무형의 기억이 초국적 스케일로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 서로 다른 집단들의 연대를 이어줄 물리적이고 상징적인 매개체가 부재했다는 사실은 미국 내 위안부 운동이 지니고 있던 기억 확산에 있어서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기억을 통한 경관의 형성은 비단 그 경관적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미국 주류 사회와의 관계 형성, 타 민족 집단들과의 공감과 연대 조장 등 실질적인 정치적 성과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위안부 소녀상이나 기림비가 미국 도시에 세워지는 현상은, 단순히 기억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도구적 방안으로도 이해될 수 있겠지만, 이는 보다 현저한 한인들의 정체성 강화와 같은 실질적 행위와 관련한 영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인들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기억인 위안부 역사는 미국 내 한인 이주민들의 결집을 내부적으로 모을 수 있는 공통된 서사인 것이다. 또한 기념비를 통해 시각적이고 물질적인 조건을 확보한 위안부의 역사는 미국 내 다른 인종 집단들이 가진 인권의 서사와 맞물려 공간적으로 조화되기도 한다 ([사진] 1 참고). 미국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의 법원 마당에는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 미국 흑인 노예, 아르메니아 대학살,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를 기억하는 서로 다른 4개의 기림비가 세워져 있다. 이는 미국 사회가 지니고 있는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서가 위안부 기림비 및 소녀상을 통해 그 역사가 가진 사회 정의 담론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버겐 카운티의 위안부 기림비를 통해 우리는 한인사회에 의해 촉발된 위안부 기억의 탈영역화가 미국으로 이동하면서 경관적 요소를 통해 재영역화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4. 기억의 재영역화와 미국 내 위안부 기억의 경관 형성

미국 내 경관의 요소로 재영역화된 위안부의 기억은 일차적으로 미국 내 한인 사회의 공동체성 건설을 향한 목적과 함께 도입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 사회 내부의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서를 감안 하더라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외국의 기억이 자국 내에 재현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일본계 미국인들과 우익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위안부 기념비 존립에 대한 물리적·정치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¹⁾ 이러한 위협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미 지역에는 2010년 10월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공립 도서관 마당에 최초의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진 이래로 12개의 도시에 위안부 소녀상 및 기림비가 건립되었다([그림 1] 참고).²⁾

미국 내 도시들에서 위안부 기념비들이 현지 주민들의 지지와 함께 건립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념비들이 지역 공동체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한국계 미국인 집단의 정서적 통합, 그리고 기억의 이동에 있어 이민자 집단이 수행한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민자 집단은 내부적 정체성의 강화를 위해 필연적으로 고국의 기억을 전유하고 새로운 생활 공간에 재영역화하여 자신들의 대내외적 소속감을 형성시킨다(Fortier, 2000). 기억을 통해 내부적 혹은 외부적 정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은 사회의 주류 세력보다는 주목 받지 못하고 소외된 이민자 집단의 필요에 의해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한인 집단이 마주한 사회적 입지 불안정과 소외감은 위안부의 기억이 미국으로 이식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본군 전쟁 성범죄의 참상을 전하면서 그들은 민족 정체성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한인 공동체 내부에 형성하려 하였으며 사회 정의를 향한 호소는 미국 주류 계층의 공감과 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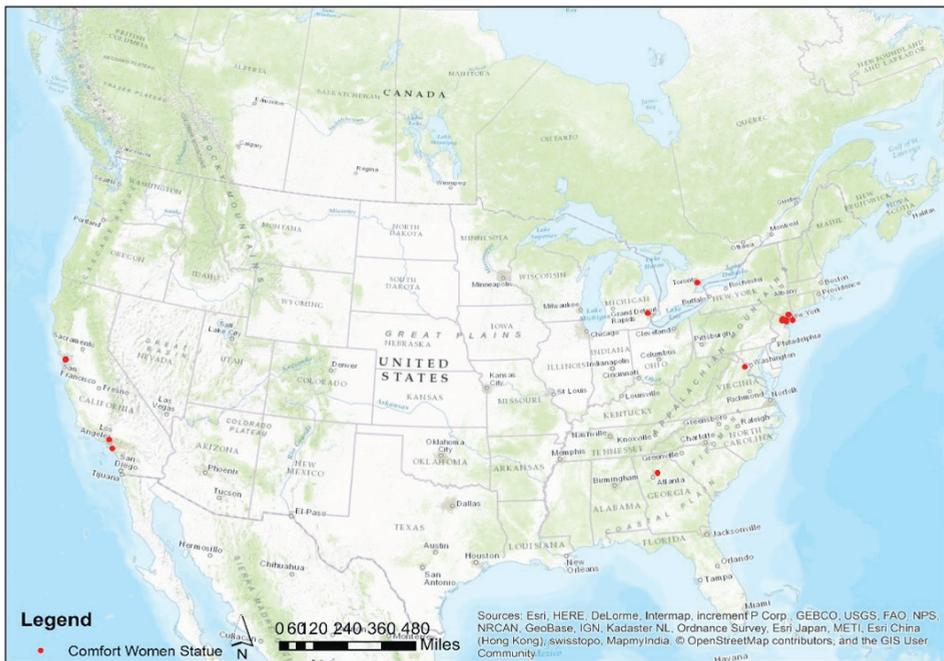


그림 1. 북미 지역 위안부 기념비 현황 (답사 결과 및 미 한인 시민단체와의 인터뷰, 신문 기사 내용 등을 교차하여 필자 작성, 2018년 12월 현재)

적 협력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작동하였다. 미국 내 최초의 위안부 기념비 건립을 주도했던 한인 시민 운동가 A는 인터뷰 중 1992년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의 흑인 폭동 당시를 언급하며 사회적 취약함과 정치적 입지 약화가 결국 여러 인종 집단 중 한인 공동체의 피해가 가장 심각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진술하였다. 언어적 장벽과 생계 유지의 압박은 미국 내 한인들의 주류 사회 진출을 막아서는 요인이 되었으며 한인 공동체의 사안에 대한 무관심으로도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면서 한인 시민 운동가 A는 위안부 기념비의 건립을 통해 한인 사회의 내부적 결집과 미국 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있어 위안부 기억의 이식은 전쟁 성범죄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목적과 함께 한인 이민자들과 미국 사회의 연결망을 형성하고 한인들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는 매개체로 인식되었던 것이다(Lien, 2010).

“지난 30년 간 계속해서 한인들의 정치력을 크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죠. 하지만 알다시피 한인들은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미국 정치나 사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논쟁이 되고 뜨거운 이슈를 하나 가지고 오자, 그래서 위안부 역사가 언급이 됐던 거고, 그래서 한인과 미국인들 사이에서 한민족 의식에 대한 부분을 크게 증진시켰던 거죠. 이게 만약 성공하면…… 우리는 기대했죠, 한인들이 미국 시민 사회에 잘 녹아들 거라고요.” (뉴저지 한인 시민단체 운동가 A와의 인터뷰 중)

위 인터뷰에서 언급되었던 한인들의 미국 내 정치적 취약성은 많은 연구에서도 밝혀졌으며 그들의 의견을 대변할 정치인을 선출하는 선거권의 행사에서도 한인들은 다른 민족 집단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Lien, Collet, Wong, and Ra-

makrishnan, 2001; Uhlaner, Cain, and Kiewiet, 1989). 미국 사회에서 겪은 소외와 분쟁, 타 민족 집단과의 갈등은 한인들의 정서적 영역에 있어 비슷한 유형의 슬픔에 더 공감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실제로 사람들은 소외와 배제의 아픔을 겪으면서 다른 집단들의 상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그것이 동질적 테두리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할 때 자신의 일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임하게 된다(Villenas, 1996). 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위안부의 기억을 이식시켰던 행위는 단순히 남의 아픔을 동정적 차원에서 인정함으로 발생했던 것이 아니라 전쟁 범죄 피해자의 입장을 미국 내 맥락에서 다시금 해석하면서 한인들이 겪었던 차별과 함께 동일 범주로 엮는 재영역화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미국 내 한인들은 이러한 정서적 영역을 대변해 줄 강력한 상징적 자원을 필요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인들의 공동체 의식 강화, 미국 시민 정치 참여로의 독려, 아시아의 맥락뿐만 아니라 미국의 맥락에서도 겪어야만 했던 한인들의 사회적 취약성과 불평등의 인식 제고 등을 도모했던 것이다.

기억의 이식과 경관 형성은 이민자 공동체 내부의 참여뿐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협력 작업 및 타 민족 집단과의 연계를 필요로 한다(Bradshaw, 2000; Hopkins, 2006). 사회 집단들은 타 집단의 입장과 사회적 경험이 자신들의 세계관과 일치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이 자신의 담론을 형성하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할 때 타자와의 연계와 유대 관계를 추구한다(Honneth, 1996). 이러한 연계의 뿌리는 바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도덕성의 토대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 집단들은 정의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연대 행위를 펼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위안부 기억의 정치를 주도했던 한인 운동가들이 한인 집단 내부의 행위를 넘어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냈던 원인이기도 했다. 한인 집단 외부의 주체들이 위안

부 역사에 귀 기울인 것은 그들 스스로 전쟁 성범죄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보다는 한인들에 의해 이식된 위안부 기억이 미국 지역 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집단적 공감이 확산되면서 이루어진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뉴저지 주 버겐 카운티의 지역 의원 B는 위안부 기림비 건립에 대한 의회 안건에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겪었던 일을 진술하였다. 여전히 일본인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으면서도 그가 기림비 건립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미국 사회 내부에서 그동안 거론되었던 홀로코스트나 흑인 노예제도의 피해자에 대한 담론과 그에 따른 인권 문제 인식이 위안부 역사와 손쉽게 엮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

“사람들은 제게 말했죠, ‘당신은 정치인이야. 왜 그런 일에 협력하려 해? 당신 알잖아…… 여기 버겐 카운티에는 일본인 공동체도 상당히 크다는 걸.’ 이후 전 말했습니다. ‘그건 크게 중요치 않아. 알다시피, 이건 가린다고(blanketing) 되는 게 아니야. 이걸 단지 옳은 일에 관계된 거지.’ 그건 인권이고, 특히나 성노예 이슈라는 건…… 사람들이 유대인 홀로코스트나 흑인 노예들에게 했던 것처럼 아주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는 거죠. 진짜 나쁜 역사였던 겁니다.”(버겐 카운티 지역 의회 의원 B와의 인터뷰 중)

위 의원과 함께 인터뷰에 응했던 또 다른 의원 C는 지역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 위안부 경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미국의 다문화 사회에서 인종 집단들 간 서로의 아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했음을 진술했다. 이는 이민자 집단이 모여있는 사회일수록 트라우마에 대한 상호간의 인식과 협력이 인권 문제를 논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Honneth and Farrell, 1997). 실제로 뉴저지 주 버겐 카운티는 다

양한 국가에서 이주한 집단들이 모여 있는 곳이며 버겐 카운티 법원 앞에 건립된 4개의 기림비들은 인종 집단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상호 인식의 결과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다([사진 1] 참고). 다양한 상처의 경험들이 한 지역에 엮이는 일은 인권문제에 대한 도덕적 인식 형성과 타 인종 집단들의 아픔을 쉽게 공감할 여건을 마련하게 된다.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는 미국의 다문화 사회 환경 속에서 위안부 기억의 정치가 재영역화되고 이식된 또 다른 지역이다. 지역 내 위안부 소녀상 건립에 앞장섰던 한인 사회 운동가 D는 한국의 여성들이 전쟁 기간 중 겪었던 성범죄의 아픔이 비슷한 인권 유린 경험을 가졌던 다른 민족 집단에게 강하게 공감되었음을 알려주었다. 특히 그는 한국 성노예 피해자의 수치심과 일본 정부의 책임 회피가 아르메니아 출신 이주자들에게 전해지면서 그들이 겪었던 학살의 기억과 일본군 성범죄의 피해 경험이 어떻게 어우러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였다.

“글렌데일에서 특이할 만한 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인종 청소를 당했잖아요…… 근데 터키 정부는 여전히 그 범죄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아르메니아 사람들도 그런 침묵의 시간을 거쳤고 그게 너무 잔인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말 못했던 거죠. 그래도 그 후손들은 기억하기 위해 학살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 인종 청소의 비인간성을 보다 분명하고 큰 소리로 알렸다면 홀로코스트 같은 일도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시 의회 의원들과 아르메니아에 미국인들에게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알렸죠. 그런 경험 때문인지 그들은 잘 이해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한인 시민운동가 D와의 인터뷰 中)

공공의 기억은 상징적 이미지나 기타 재현의 양식을 통해 집단 간의 단결을 불러일으키고 실천적 영역을 고취시킨다(Butler, 1988). 공감을 통한 타 집단과의 연대 활동은 미국 내 위안부 기억의 정치와 경관을 특징짓는 요소로 파악할 수 있으며 수많은 이민자 집단으로 구성된 미국 사회는 위안부 기억에 대한 초국적 영역에서의 이해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환경 속에서의 경관은 집단적 상처와 트라우마에 대한 서사를 보다 다양한 집단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기억의 정치는 본래의 장소가 가졌던 단일 청중과 제한된 범위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국면을 맞이한다.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타 민족과의 어우러짐 속에서 특정 경관으로 비롯되는 기억의 재현은 비슷한 아픔을 간직한 집단의 감성적 공감을 통해 운동의 과급력을 증가시키게 된다. 기억의 탈영역화를 통해 제한적 영역을 벗어난 한 집단의 서사는 타 집단의 공감과 인식을 통해 공간적 스케일의 조정이 이뤄지고 초국적 지지자들과의 연계 속에 운동의 범위는 더욱 넓어지는 효과를 얻게 된다(Bosco, 2004; Kelly, 1997; Post, 2011).

5. 결론

기억은 하나의 장소에 국한된 정적인 실체가 아닌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전파될 수 있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지리적 영역을 뛰어넘는 기억의 전파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공간적 요소를 포함한 재현의 형태를 동반할 때 공감의 정도는 더욱 깊어질 수 있다. 1990년대 최초의 공개 증언 이래로 시작된 위안부 기억의 정치는 점차 한반도 영역을 벗어나 다양한 스케일에서 수행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한인 이민자 집단을

중심으로 진행된 위안부 기억의 적극적 수용은 기억의 탈영역화와 재영역화의 중요한 사례를 남겨준다. 그동안 기억이 본래의 영역에서 벗어나 공간적 스케일을 뛰어넘어 전파된다는 사실은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지만 그의 토대와 원인에 대해서는 지리학의 영역에서조차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가 밝힌 위안부 기억의 전파는 누구에 의해 탈영역화가 진행되며 재영역화의 과정에서 필요한 맥락적 요소는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사례라 볼 수 있다.

위안부의 기억은 태평양 전쟁 기간 중 일본군의 체계적 성범죄라는 매우 특수한 맥락으로부터 비롯된 집단적 상처이다. 이러한 기억이 반세기 넘는 기간 한반도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채 그 지리적 영역 안에 묶여있었다는 사실은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공감(recognition)에 대한 사유를 통해 봤을 때 이는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니었다. 위안부 문제를 거론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하느냐에 달려있다. 피해자의 상처를 이루는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위안부 문제를 접근한다면 전쟁 성범죄로 고통 받았던 할머니들의 트라우마를 더욱 악화시키는 위험성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의 성숙하지 못했던 성 규범 문제와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부족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대중적 공감을 전혀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이는 수십 년 간 위안부 기억이 한반도 내에서만 맴돌았던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문화적 성숙도가 '90년대 민주화와 함께 진행되기 시작하고 위안부 역사에 대한 평가가 적절한 방향으로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피해자들의 기억은 한반도 내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는 해외에 이주한 한인들에게도 위안부 기억이 알려지게 된 계기를 제공했으며 전쟁 성범죄의 잔혹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기억의 탈영역화에 대한 단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위안부의 기억을 인식하고 있던 미국 내 한인들은 사회 안전의 취약함과 정치적 불안정성의 위치를 늘 안고 살아갔다. 이는 그들 내부의 공동체 의식 약화로부터 온 시민 정치 활동의 침체와 참정권에 대한 무관심으로 비롯된 미국 내 입지 불안정성으로 귀결되었는데,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이 본격화되기 전 벌어졌던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은 그러한 모순이 폭발적으로 드러났던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사회적 안전망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던 미국 내 한인 사회는 폭력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처참하게 파괴된 공동체에서 한국인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필요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공동체 의식과 시민 참여에 대한 실질적 요구는 결국 고국의 위안부 기억을 적극적으로 채택했던 원인이 되었으며 위안부 기억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한인 사회는 공동체 의식을 발전시킬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이는 곧 기억의 탈영역화가 일어나기 위한 사례와 전제 조건을 말해준다. 기억이 본래의 장소로부터 탈영역화되는 과정은 결국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안고 있는 해외의 동족 집단이 고국의 아픔을 인식하고 그것의 적극 수용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려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기타 다른 이유들 또한 기억의 탈영역화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위안부 기억의 미국 내 이식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이민자 집단은 위안부 기억의 수용을 통해 공동체 의식의 강화와 미국 주류 사회와의 연계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

새롭게 이식된 기억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각적이고 물질적인 요소를 동반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기억의 경관에 대한 요구는 위안부 기림비와 소녀상의 형태로 실현되기 시작했다. 기억의 경관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한인 사회는 외부 집단들과의 적극적 유대 관계를 설정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는 기억이 경관적 요소를 통해 새로운 장소에서 재영역화되는 과정 중 필요로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기억의 재영역화는 기억이 이식된 현지의 집단들에게 공감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질적인 기억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게 된다. 이민 사회에서 타 집단으로부터의 공감과 협력 기반이 취약하게 된다면 경관을 통해 새롭게 이식된 기억은 뿌리깊게 자리잡지 못하고 일본계 미국인들과 같은 분쟁 집단에 의해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다른 인종 집단의 공감은 사실 사회 정의에 대한 단순한 인식에 따라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비슷한 아픔과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는 집단들에 의해 공감 확산의 토양이 충분히 조성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버겐 카운티와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글렌데일 시 역시 다양한 아픔을 가진 인종 집단의 공감이 충분히 무르익었기에 위안부 기념비의 건립과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으며 이는 기억의 초국적인 확산이 다분히 정치적인 역학과 특수한 공간적 맥락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위안부의 기억은 여러 집단들의 노력에 의해 보다 넓은 영역에서의 확산이 이뤄지고 있다. 사회적 배제와 차별, 아픔의 기억은 사실 부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영역에 더 가까울 수 있으나 이 사례에서는 위안부 기억의 공감을 낳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위안부 문제에 내재된 사회 부정의(social injustice)는 여전히 존재하는 한국 사회 내의 인식의 부재와 일본 정부의 부족한 해결 의지로부터 비롯되며 이는 문제의 해결을 요원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하지만 동종의 트라우마를 가진 공감 집단이 기억의 정치를 통해 확산되고 증가한다는 사실은 위안부 저항 운동의 기반과 한인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입지를 건설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주

- 1) 미국 최초의 위안부 기림비(Palisades Park, NJ) 제작에 참여했던 화가 스티브 카발로(Steve Cavallo)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지속적인 항의 표시 방문 및 제임스 로튼도 시장에게 보낸 철거 요구 서한 등을 통해 일본계 미국인 및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기림비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나타냈음을 언급하였다. 기림비에 대한 일본인들의 공격은 상대적으로 거센 편은 아니지만 위안부의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소녀상에 대한 위협은 더욱 격렬하고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 이뤄진다. 소녀상의 형태로는 미국 최초로 건립된 글렌데일 시의 위안부 기념비는 특히 일본계 우익 인사들과 친일 미국인들의 조롱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온라인 상으로도 이들의 소녀상 모욕 이미지는 널리 퍼져있다. 또한 일본 우익 정치인들은 글렌데일 시와 의회에 끊임없는 로비와 철거 요구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한인 시민단체와의 인터뷰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위안부 기념비 건립이 미국 도시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일본계 미국인들은 소녀상 건립에 대한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치적 행위를 벌이기도 한다. 실제로 조지아 주 브룩헤이븐 시에 건립된 위안부 소녀상은 당초 애틀랜타 다운타운에 위치한 흑인 인권 박물관 옆에 세워질 예정이었으나 재미 일본인 단체 및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박물관 지원 중단 위협으로 무산되었고 한인 시민단체는 대체 장소를 모색한 끝에 애틀랜타 근교의 브룩헤이븐 시에 건립하게 되었다. 위안부 소녀상으로 인한 갈등은 일본 본토에 위치한 기관과 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2017년 초 미 샌프란시스코 의회에 의해 위안부 소녀상 건립이 통과되자 자매결연을 맺고 있던 일본 오사카 시는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항의가 유효한 결과를 불러오지 못한 채 예정대로 위안부 소녀상이 당해 9월에 건립되자 일본 오사카 시는 샌프란시스코와의 오랜 자매결연 관계를 끊어버렸다.
- 2) 미국 내 위안부 기림비 및 소녀상이 설치된 도시는 오래된 시기순으로 팰리세이즈파크(Palisades Park, NJ, 2010. 10. 23.), 낫소 카운티(Nassau County, NY, 2012. 6. 18.), 버겐 카운티(Bergen County, NJ, 2013. 3. 8.), 글렌데일 시(Glendale, CA, 2013. 7. 30.), 페어팩스 카운티(Fairfax County, VA, 2014. 5. 30.), 사우스필드 시(Southfield, MI, 2014. 8. 18.), 풀러턴 시(Fullerton, CA, 2014. 12. 1.), 캐나다 토론토 시(Toronto, ON CA, 2015. 11. 18.), 브룩헤이븐 시(Brookhaven, GA, 2017. 6. 30.), 샌프란시스코 시(San Francisco, CA, 2017. 9. 22.), 뉴욕 시(New York

City, NY, 2017. 10. 13.), 포트리(Fort Lee, NJ, 2018. 5. 23.) 등이다.

참고문헌

- 고혜정, 200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록하며," 실천문학 61, pp.317-334.
- 권상철, 2015, "대안 공동체 경제 논의와 제주지역 사례: 마을 공동어장과 이시돌 목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8(4), pp.395-414.
- 신동호, 2013, "대덕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착근성과 기업성장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1), pp.37-49.
- 윤미향, 2012, "20년간의 수요일," 한국여성신학 74, pp.146-174.
- 이나영, 2010, "일본군 '위안부' 운동: 포스트/식민국가의 역사적 현재성," 아세아연구 53(3), pp.41-78.
- 이홍택·정성훈, 2012,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지역발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 마을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5(4), pp.708-720.
- 장한별·지상현, 2018, "언어의 정치생태학: 생태관광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생산과 보존,"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1(2), pp.139-155.
- 정근식·김민환, 2016, 냉전의 섬 금문도의 재탄생, 과천: 진인진.
- 주성재·노경란, 2018, "사회적 경제에 관한 경제지리학의 연구주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1(2), pp.173-191.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993,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증언집 1, 서울: 한울.
- 한우성, 2000, "[포커스] 끝나지 않은 전쟁: 미국에서 진행중인 '일본군 위안부' 및 징용 소송에 대한 보고서," 당대비평, pp.93-136.
- 후루하시 아야, 2017, "포스트식민주의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인식: 2014년 일본 신문 사설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3(1), pp.267-304.
- Alderman, D. H., 2003, "Street names and the scaling of memory: The politics of commemorating Martin Luther King, Jr within the African American community," *Area* 35(2), pp.163-173.
- Alderman, D. H., 2008, "Martin Luther King Jr. Streets in the South: A new landscape of memory," *Southern Cultures* 14(3), pp.88-105.
- Alderman, D. H. and Inwood, J. F., 2013, "Landscapes of memory and socially just futures," in Johnson, N. C., Schein, R. H. and Winders, J. (eds.), *The Wiley-Blackwell Companion to Cultural Geography*, Hoboken: Wiley-Blackwell, pp.186-197.
- Alderman, D. H., Kingsbury, P. and Dwyer, O. J., 2013, "Reexamining the Montgomery bus boycott: Toward an empathetic pedagogy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The Professional Geographer* 65(1), pp.171-186.
- Anderson, B., 2006,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New York: Verso.
- Assmann, A., 2010, "The Holocaust—A global memory? Extensions and limits of a new memory community," in Assmann, A. and Conrad, S. (eds.), *Memory in a Global Age*, London: Palgrave Macmillan, pp.97-117.
- Assmann, A., 2014, "Transnational memories," *European Review* 22(4), pp.546-556.
- Bhabha, H. K., 2012,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 Blickstein, T., 2009, "Forgetful 'Sites of Memory': Immigration Museums and the Uses of Public Memory," *The New School Psychology Bulletin* 6(2), pp.15-31.
- Bond, L., Craps, S. and Vermeulen, P., 2017, *Memory Unbound: Tracing the Dynamics of Memory Studies*, New York: Berghahn.
- Bosco, F. J., 2004, "Human rights politics and scaled performances of memory: Conflicts among the Madres de Plaza de Mayo in Argentina," *Social & Cultural Geography* 5(3), pp.381-402.
- Bradshaw, T. K., 2000, "Complex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Collaboration, comprehensive programs,

- and community coalitions in complex society,”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35(2), pp.133-145.
- Brubaker, R., 2001, “The return of assimilation? Changing perspectives on immigration and its sequels in France,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Ethnic and Racial Studies* 24(4), pp.531-548.
- Butler, J., 1988, “Performative acts and gender constitution: An essay in phenomenology and feminist theory,” *Theatre Journal* 40(4), pp.519-531.
- Foucault, M., 1980, *Language, Counter-Memory, Practice: Selected Essays and Interview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Fortier, A. M. F., 2000, *Migrant Belongings: Memory, Space, Identity*, Oxford: Berg.
- Friedrich, D., 2011, “The memoryscape in Buenos Aires: Representation, memory, and pedagogy,” *Journal of Curriculum Theorizing* 27(3), pp.171-189.
- Glazer, N., 1998, *We Are All Multiculturalists Now*,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erod, A., 1997, “From a Geography of Labor to a Labor Geography: Labor’s Spatial Fix and the Geography of Capitalism,” *Antipode* 29(1), pp.1-31.
- Honneth, A., 1996,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Moral Grammar of Social Conflicts*, Cambridge: MIT Press.
- Honneth, A., 2004, “Recognition and justice: Outline of a plural theory of justice,” *Acta Sociologica* 47(4), pp.351-364.
- Hopkins, G., 2006, “Somali community organizations in London and Toronto: Collaboration and effectiveness,” *Journal of Refugee Studies* 19(3), pp.361-380.
- Howe, S., 1999, *Afrocentrism: Mythical Pasts and Imagined Homes*, New York: Verso.
- Jacobson, M. F., 2002, *Special Sorrows: The Diasporic Imagination of Irish, Polish, and Jewish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elin, E., 1994, “The politics of memory: The human rights movement and the construction of democracy in Argentina,” *Latin American Perspectives* 21(2), pp.38-58.
- Kaplan, C., 1987, “Deterritorializations: The rewriting of home and exile in western feminist discourse,” *Cultural Critique* 6, pp.187-198.
- Kelly, P. F., 1997, “Globalization, power and the politics of scale in the Philippines,” *Geoforum* 28(2), pp.151-171.
- Lee, J. S., 1991, *Jacques Lacan*,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 Lefebvre, H.,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Oxford: Blackwell.
- Levy, D. and Sznajder, N., 2002, “Memory unbound: The Holocaust and the formation of cosmopolitan memory,”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5(1), pp.87-106.
- Lien, P. T., 2010, *Making of Asian America: Through Political Participation*,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Lien, P. T., Collet, C., Wong, J. and Ramakrishnan, S. K., 2001, “Asian Pacific-American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34(3), pp.625-630.
- Nash, G. B., Crabtree, C. A. and Dunn, R. E., 2000, *History on Trial: Culture Wars and the Teaching of the Past*, Vintage.
- Novick, P., 2000, *The Holocaust in American Life*, Boston: Houghton Mifflin Harcourt.
- Post, C. W., 2011, “Art, scale, and the memory of tragedy: a consideration of public art in Pleasant Hill, Missouri,” *Material Culture* 43(2), pp.43-58.
- Hall, T. and Robertson, I., 2016, “Memory, identity and the memorialization of conflict in the Scottish Highlands”, in Whelan, T. (ed.), *Heritage, Memory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Abingdon: Routledge, pp.31-48.
- Rose-Redwood, R. S., 2008, “From number to name: symbolic capital, places of memory and the politics of street renaming in New York City,” *Social & Cultural Geography* 9(4), pp.431-452.
- Rothberg, M., 2009, *Multidirectional Memory: Remembering*

- the Holocaust in the Age of Decolonization*, Palo Alto: Stanford University Press.
- Roudometof, V., 2002, *Collective Memory, National Identity, and Ethnic Conflict: Greece, Bulgaria, and the Macedonian Question*, Westport: Greenwood Publishing Group.
- Shirinian, L., 1998, "Survivor memoirs of the Armenian Genocide as cultural history," in Hovannisian, R. G. (ed.), *Remembrance and Denial: The Case of the Armenian Genocide*,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pp.405-423.
- Till, K. E., 2008, "Artistic and activist memory-work: Approaching place-based practice," *Memory Studies* 1(1), pp.99-113.
- Till, K. E., 2012, "Wounded cities: Memory-work and a place-based ethics of care," *Political Geography* 31(1), pp.3-14.
- Tilly, C., 1994, *Remapping Memory: The Politics of Timespa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Uhlener, C. J., Cain, B. E. and Kiewiet, D. R., 1989, "Political participation of ethnic minorities in the 1980s," *Political Behavior* 11(3), pp.195-231.
- Villenas, S., 1996, "The colonizer/colonized Chicana ethnographer: Identity, marginalization, and co-optation in the field," *Harvard Educational Review* 66(4), pp.711-732.
- Watson, A., 2009, "Social security for China's migrant workers-providing for old age," *Journal of Current Chinese Affairs* 38(4), pp.85-115.
- 교신: 윤지환, 05029,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과학관 121호 지리학과, 전화: 02-450-3432, 팩스: 02-3436-5433, 이메일: amyjh07@konkuk.ac.kr, amyjh07.yoon@gmail.com.
- Correspondence: Jihwan Yoon, Department of Geography, Konkuk University, 120 Neungdong-ro Gwangjin-gu, Room 121 Science Building, Seoul, 05029, South Korea, Phone: 02-450-3432, Fax: 02-3436-5433, Email: amyjh07@konkuk.ac.kr, amyjh07.yoon@gmail.com
- 최초투고일 2018년 12월 5일
수정일 2018년 12월 21일
최종접수일 2018년 12월 26일